

문 7. 밑줄 친 ‘실의(失意)의 무진행’ 당시에 ‘박군’은 몇 살이었으며, 현재 내 나이는 몇 살인가?

4년 전, 나는 내가 경리(經理) 일을 보고 있던 제약회사가 좀 더 큰 다른 회사와 합병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고 무진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아니 단지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을 떠났던 것은 아니었다. 동거하고 있던 희만 그대로 내 곁에 있어 주었던들 실의(失意)의 무진행은 없었으리라.

“결혼하셨다더군요?”

박이 물었다.

“흐응, 자넨?”

“전 아직. 참 좋은 데로 장가드셨다고들 하더군요.”

“그래? 자넨 왜 여태 결혼하지 않고 있나? 자네 금년에 어떻게 되지?”

“스물아홉입니다.”

“스물아홉이라. 아홉수가 원래 사납다고 하대만. 금년엔 어떻게 해 보지 그래?”

“글쎄요.”

박은 소년처럼 머리를 긁었다. 4년 전이니까 그해의 내 나이가 스물아홉이었고 희가 내 곁에서 달아나 버릴 무렵 지금 아내의 전 남편이 죽었던 것이다.

- 김승옥, 『무진기행』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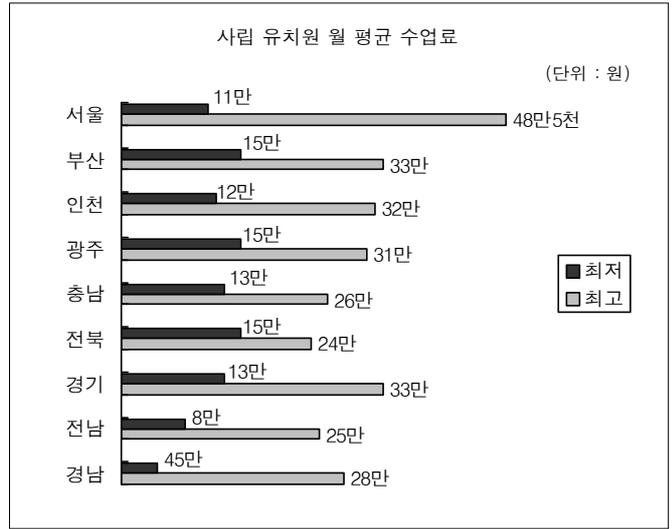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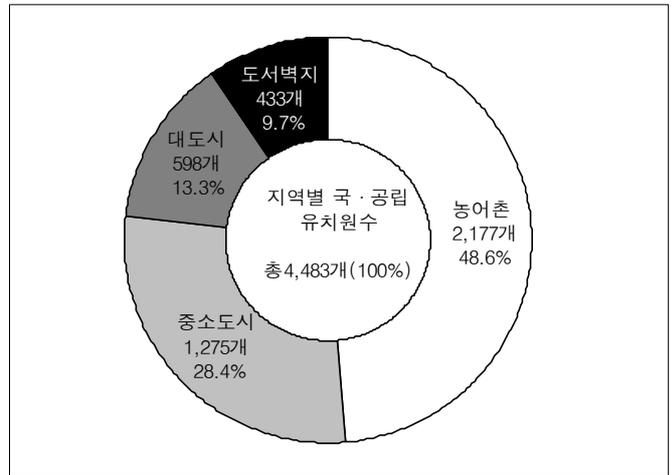
	박군의 나이	내 나이
①	25	29
②	29	33
③	29	29
④	25	33

문 8. 다음 글에서 (㉠)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한국인은 매우 빠른 속도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음식점에 가면 우리의 속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음식을 시킨 후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재촉한다. 원래 음식을 만들려면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손님's 요구대로 음식을 급하게 만들어서 내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현대인들 대다수가 계단보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빠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 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절차와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 ‘빠름’에서 벗어난 음식을 천천히 기다리는 멋, 한 계단씩 딛고 올라가는 즐거운 멋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 ① 아이 자라 어른이 된다.
- ②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 ③ 승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다.
- ④ 망건 쓰고 귀 안 빼는 사람 있느냐.

문 9. 다음 표를 보고 추론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도별 사립 유치원 등록금 순위는 그 지역의 국·공립 유치원의 수와 비례할 것이다.
- ② 미취학 자녀들을 키우는 대도시 빈민들은 자녀의 유치원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③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은 교육 환경이 부실한 지역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④ 대도시에 있는 사립 유치원의 월 평균 수업료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싼 국·공립 유치원 수의 부족에도 기인한다.

문 10. 다음 글의 내용에 따라 만들어진 광고 카피가 아닌 것은?

러시아 형식주의자인 야콥슨은 문학을 “일상 언어에 가해진 조직적인 폭력”이라 말한다. 즉 문학은 일상 언어를 변형하여 강도 있게 하며 일상적인 말로부터 계획적으로 일탈한다는 것이다. 낮설게 하기는 문학 언어를 일상 언어와 구별시켜 주는 근본이다. 우리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상투성으로 인해 우리의 의식은 고여 있는 물처럼 새롭게 생성되지 못하고 스테레오 타입으로 고정되고 자동화된다. 광고 카피에서 기존의 식상한 표현을 벗어나 놀라움을 준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선 도식적인 공식, 즉 법칙을 파괴하는 창조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학에서 말한 이것과 같은 의미이다.

- ① 난 샐러드를 마신다! (OO유업 - 요구르트 광고)
- ② 이젠, 빛으로 요리하세요! (OO전자 - 전자레인지 광고)
- ③ 차도 이 맛을 안다. (OO정유 - 기름 광고)
- ④ 우리는 젊음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OO그룹 - 기업 광고)

문 11.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는 정신이 없어지고 지적 능력이 감퇴한다는 것이 일반 여성들의 상식이었다. 그런데 올 봄 풀리처상 수상 작가인 캐서린 엘리슨이 『엄마의 뇌:엄마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뇌를 얼마나 영리하게 하는가』라는 책을 써서 뉴욕 타임즈, CBS, NBC, BBS 등의 기사가 된 바 있다. 엘리슨이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은 1999년의 신경과학자 크레이그 킹슬리 등의 연구 결과를 접하고였다.

최근 보스턴 글로브 지(誌)에 킹슬리 박사 팀은 몇 개의 실험을 통하여 흥미 있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들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엄마쥐는 처녀쥐보다 인지능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후각능력과 시각능력이 급증하고 먹잇감을 처녀쥐보다 세 배나 더 빨리 찾았다. 엄마쥐의 뇌의 해마(기억 및 학습 담당)의 신경로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엄마쥐가 되면 어머니의 두뇌는 에스트로젠, 코티졸, 기타 다른 호르몬에 의해 마치 목욕을 한 것처럼 된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어미 혼자 내적으로 두뇌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새끼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두뇌 변화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새끼를 젖먹이고 다루고 하는 과정에서 감각적 민감화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인지적 능력이 상승한다.

그러면 인간에게서는 어떨까. 대개 어머니가 되면 너무 힘들고 일에 부대껴서 결국은 머리가 켈리처럼 말랑말랑해져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상당 부분 사회공동체적 자기암시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하이오 신경심리학자 줄리에 수어는 임신한 여성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A집단에게는 ‘임신이 기억과 과제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고 B집단에게는 설명 없이 그 과제를 주었다. 그 결과 A집단 임신 여성들이 B집단보다 과제 수행점수가 상당히 낮았다. A집단은 임신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부정적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아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쥐에게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감각, 인지적 능력 및 용감성 등을 높여 준다. 아빠쥐도 새끼와 상호작용하면서 뇌가 더 영리해진다고 한다. 임신한 엄마처럼 아빠의 뇌에서도 관련 호르몬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금껏 연구는 주로 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인간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많다.

- ① 이 글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② 이 글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뇌 기능의 변화에 관한 실험 결과를 논박하고 있다.
- ③ 임신과 출산의 긍정적 측면은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 및 아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지-수행 뇌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 ④ 육아 활동을 통해 아빠의 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문 12.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발한 과장 광고의 사례는 300건이 훨씬 넘는다.
- ② 유리 건물은 은폐 공간을 최소화하여 각종 사고 예방과 업무의 생산성도 높이고 있다.
- ③ 어제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이 다르듯이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도 다르다.
- ④ 한국인에게 있어서 대장암은 위암이나 폐암 등과 같이 발병률이 높은 암이다.

문 13. ㉠ ~ ㉣에 들어갈 한자 숙어나 고사 성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이라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니 욕심이 생긴다.
 ○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은 작년 것과 (㉡)하다.
 ○ 부정부패를 (㉢)하고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법이다.
 ○ 공무원은 (㉣)의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① | 見勿生心 | 大同少異 | 發本塞源 | 不偏不黨 |
| ② | 見勿生心 | 大同小異 | 拔本塞源 | 不便不黨 |
| ③ | 見物生心 | 大同小異 | 拔本塞源 | 不偏不黨 |
| ④ | 見物生心 | 大同少異 | 發本塞源 | 不便不黨 |

문 14. (가) 상황에 어울리는 글을 쓰려고 할 때 (나) 조건에 가장 잘 맞는 것은?

(가) 상황: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 자주 다투는 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충고의 말을 하려 한다. 내용은 삶과 관련하여 ‘조화(調和)의 가치’에 대한 것으로 하고자 한다.

(나) 조건: ㉠ 대립적인 속성을 지닌 사물을 이용한다.
 ㉡ 유추와 대조의 표현 효과를 살린다.
 ㉢ 가치의 요소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① 이는 딱딱하고 혀는 부드럽다. 이는 음식을 씹되 그 맛을 모르고, 혀는 맛볼 수는 있으나 맛이 우리나라에 씹을 수는 없다. 이 둘이 어울려 제 기능을 다할 때 음식으로부터 즐거움과 건강을 얻을 수 있듯이,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가 존재하기에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런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 ② 분수와 폭포는 영원한 대립자이다. 폭포는 지하를 향해 끝없이 하강하려 하지만, 분수는 천상을 향해 부단히 상승하려고 한다. 폭포가 철저히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려 한다면 분수는 이러한 법칙에 반대하고 저항한다. 이 두 개의 의지는 결코 서로 만나 이웃을 이루는 일이 없다.
- ③ 광명과 암흑은 정반대의 현상이다. 그러나 광명이 있을 때 비로소 암흑이 생겨난다. 촛불로 인해 찾아 온 광명은 암흑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촛불 밑에 암흑을 불러들인다. 광명이 없는 암흑은 다만 죽어 있는 정적에 지나지 않는다. 광명은 암흑을 깨어나게 한다.
- ④ 인간에게 역사와 신화의 두 다리가 있다. 역사는 먹고 자고 입는 일상의 울타리 속에서 움직이며, 신화는 사랑하고 노래하며 춤추는 초월의 언덕 위에서 행동한다. 밥은 역사의 양식이며 술은 신화의 양분이다. 이 둘 모두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술 없이는 살아도 밥 없이는 살 수 없다.

문 15.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말하기로 볼 수 없는 것은?

성공적인 대화가 되려면 감동을 줄 수 있는 솔직한 화법이어야 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해야 하며, 상대방의 의견과 다른 내용일지라도 완곡 어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함께 전달하거나 적절한 표현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① 뭐 대학엔 별 생각이 없어? 정신 차려 인마. 너만큼 컴퓨터 하는 놈들은 얼마든지 있어! 한심한 놈, 밥 대신 꿈 먹고 사는 놈 아냐, 이놈이.
- ②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 꾸벅 인사하며) 컴퓨터,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고개 푹 숙여 인사하며) 죄송합니다.
- ③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엘 고어는 경기장 내 담배 광고판을 없애자는 취지의 연설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소녀의 나이는 열세 살이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나이 들수록 흡연 횟수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십대의 꽃다운 나이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소녀는 다음 아닌 내 누이였습니다.”
- ④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루 말하면 이제 겨우 열여섯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갈에는 열 일을 제치고라두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운 것인가. 빨리 가서 모 붓든 거나 마저 붓게.

문 16. 언어 예절에 맞는 것은?

- ① (같은 반 친구에게) 철수야,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시래.
- ②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선생님,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
- ③ (점원이 손님에게) 진부 합쳐서 6만 9천원 되시겠습니다.
- ④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에서) 할아버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 17.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국어의 고유어에는 상징어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여 있다.
- ② 국어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결합하는 첨가어의 특성을 지닌다.
- ③ 국어는 첫소리에서 ‘ㄱ’, ‘ㅇ’이 발음되지 않는다.
- ④ 국어의 자음은 [k]:[g], [t]:[d], [p]:[b]처럼 ‘무성음:유성음’의 대립을 이룬다.

문 18. 어원상 신체 기관과 관계없는 한자어는?

- ① 단장(斷腸)
- ② 유전(遺傳)
- ③ 지장(指章)
- ④ 장풍(掌風)

문 19. 밑줄 친 단어와 문맥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 ① 관찰하고
- ② 예언하고
- ③ 간주하고
- ④ 전망하고

문 20.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쓰레기를V길에V버리면V안된다.
- ② 이V일을V하는V테에V사흘이V걸렸다.
- ③ 부모V자식간에는V정이가V있어야V한다.
- ④ 그가V집을V떠난지V일V년이V지났다.